

전문가풀 회의결과 보고서

I. 개 요

1. 일시: 2013년 6월 13일 (07:30~09:00)

2. 장소: 서울 팔레스호텔 3층 체리룸

3. 발표자: 정영천(한양대학교, 교수)

4. 참석자(내부: 9명) : 이권형(중동팀, 연구위원)

강대창(동남아팀, 부연구위원)

손성현(중동팀, 연구원)

박재은(중동팀, 연구원)

장윤희(중동팀, 연구원)

서영경(일본팀, 연구원)

송영철(인도팀, 전문연구원)

임민경(중국팀, 연구원)

김미정(중동팀, 연구조원)

(외부: 10명): 김영기(한국수출입은행, 실장)

김중한(국토교통부, 사무관)

박창주(법무법인 양현, 변호사)

소재필(국방부, 법무관)

장용재(법무법인 광장, 변호사)

장철복(SC은행, 이사)

장혜정(산업통상자원부, 사무관)

정영주(법무법인 정진, 변호사)

정영천(한양대학교, 교수)

홍성민(한국외국어대학교, 교수)

5. 발제 제목

- 이슬람보험(Takaful)의 구조와 운영방법: Family & Motor Takaful 사례와 함께

II. 주요 논의 사항

- 타카풀과 전통 보험의 차이 및 상품별 특징에 대한 이해

1) 발제내용

☐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과 전통 보험의 차이

- 이슬람 보험을 지칭하는 타카풀은 아랍어의 ‘카팔라(보증서다, 담보하다)’에서 유래함.
- 타카풀은 상호 보험(보험 계약자가 주인인 보험)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보험계약자가 위험을 공유하고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함.
- 카타풀에 대한 각종 보고서에서 전통 보험과 사용되는 용어가 달라 전통 보험과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하지만 금융 구조상에 큰 차이는 없음.
- 예를 들어 보험은 공적 부조, 상호회사의 형식을 가지며 보험회사가 실적에 대해 배당하는 특성이 있으며 타카풀도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짐.
- 타카풀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낸 금액 일부를 기부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는 ‘타발루’라는 것이 있는데 이 또한 전통 보험과 같은 형태임.
- 타카풀에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있음.
- 타카풀은 이슬람에서 강조하고 있는 상호 도움, 협동 및 형제애를 실

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.

□ 카타폴의 자금 운용

-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에도 다른 이슬람 금융과 동일하게 이자, 위험, 도박성 등에 대한 투자는 포함되지 않음.
- 카타폴에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크게 저축과 투자에 사용되는 PA(Participants' Account: 저축성 보험에 해당)와 타바루 혹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PSA(Participants' Special Account)로 구분됨.
- PSA와 PA의 운용수익을 나누는 종류에 따라 타카폴의 모델이 결정됨.
- 전통 보험은 보험자가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보장 관계가 결정되지만 타카폴에서는 보험자가 오퍼레이터(보험관리자, 보험사)에게 자금을 맡기고 그 자금에는 PA와 PSA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임.
- 그러나 결과적으로 설명할 경우 심사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등 전통보험과 동일함.
- 타카폴은 도박성이 높은 부분에 투자하거나 불확실한 투자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.
- 또한 전통 보험은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지만 타카폴은 위험을 공유함.

□ 이슬람 보험 및 신흥지역 보험 진출 가능성

- 한국의 한화 생명이 신흥 보험시장 및 이슬람 보험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.

- 미국은 상호보험의 비율이 높아 카타폴을 비교적 쉽게 받아드릴 수 있음.
- 한국의 보험회사는 대부분 주식회사이며 공재보험은 별로 없음.
- 터키와 같은 신흥국은 보험 침투도(GDP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)가 낮으며 보험 침투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.
- 터키 및 동남아시아와 같은 국가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출할 필요가 있음.
- 향후 신흥국의 카타폴 시장 성장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남.
- 손해보험은 전통 보험과 더욱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도 외국계 대형 보험회사가 운영함.

□ 이슬람 보험의 모델(와칼라, 무다라바, 하이브리드 및 와끄프)

- 와칼라 모델은 수수료를 기초로 하고 보험회사가 자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은 공유하지 않는 특성이 있음.
- 와칼라에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면 이 중 수수료를 보험회사가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투자 및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모두 보험계약자가 소유함.
- 이때 운영수익 및 배당은 현금으로 주지 않고 다음 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면제해주는 형태로 지급함.
- 많은 논문에서 까드르 하산이라는 무이자 자금 출자기관에서 보험회사가 자금을 빌려 운영하거나 보험계약자들 간에 손실금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회사가 손실을 다 감수함.

- 무다라바는 수수료는 없으나 수익 및 손실을 공유하는 특성이 있음.
-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면 보험회사가 운영하여 발생한 손익을 보험자와 보험회사 간에 분배함.
- PSA와 PA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원칙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이에 대한 효율성 문제에 대해 학자마다 의견차이가 있음.
- 와칼라와 무다라바의 장점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일정 금액 수수료를 보험회사가 취하면서 이후 보험금 운영에 의해 발생한 손익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공유함.
- 와칼라 와끄프는 기본적으로 와끄프(기부) 펀드를 보험회사가 만들거나 국민연금 같은 곳에서 펀드를 만들어 운영함.
- 만들어진 펀드를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자가 추가로 자금을 예치하면 보험회사가 와끄프 펀드를 운영하는 것임.
- 여기에서 보험가입자는 수수료를 20~30%가량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험회사가 운영함.

□ 리타카풀(re-takaful) 시장

- 타카풀의 공신력과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리타카풀 또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세계적인 재보험회사들이 리카타풀도 운영하고 있음.
- 리타카풀의 경우 계약제와 임의제가 있음.
- 계약제 리타카풀은 매년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간 합의한 금액을 재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방법임.
- 임의제는 일정 기간마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임의

기간 동안에 특정 리스크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임.

2) 토론 내용

☐ PSA와 PA를 나누는 개념

- 보험금을 투자 및 운영하여 얻은 이익은 보험 운영자와 보험 가입자 간 분배할 수 있음.
- 나누는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의 종류 및 모델에 따라 상이하며 계약 시에 확인할 수 있음.

☐ 타카풀과 같은 상호회사의 책임범위

- 상호회사의 책임범위는 무한하며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파산도 가능함.
- 상호보험도 부채가 증가하여 파산할 수 있으나 그 파급효과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M&A나 국가 구제금융을 통해 파산을 막아주는 것이 대부분임.
- 타카풀도 일종의 상호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무한책임이 적용됨.

☐ 타카풀에서 와끄프 와칼라와 일반 와칼라의 차이

- 둘 다 수수료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펀드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구분 가능함.
- 와끄프 와칼라는 초기에 와끄프라는 펀드가 존재하며 여기에 operator(보험 운영회사)가 보험가입자의 자금을 추가하여 운영함.
- 이때 나오는 수익금은 보험 운영회사와 보험가입자가 분배할 수 있

지만 최초의 와끄프 펀드는 원소유주(보험회사, 국가)에 귀속됨.

□ 말레이시아에서 타카풀 지급 예시

- 타카풀 가입자가 매년 978링깃의 보험금을 넣고 있다고 5년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가입자는 자신이 넣은 보험금 중 PA 부분 5년 치의 금액과 보험회사가 운영하여 얻은 배당금(400링깃) 그리고 PSA 5,000링깃을 합쳐 총 10,290링깃을 수령할 수 있음.
- 도박성을 없애기 위해 전통 보험회사에 비해 사고발생 시 환급금을 보다 작을 수 있음.
-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에 타카풀도 환급금을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줌.
- 만기 시에는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PA와 그것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만을 환급하고 PSA에 대한 지급은 없음.
- 예를 들어 1년 보험료가 978링깃이고 10년이 만기인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10년 뒤에 만기에 따라 9,780링깃과 운영수익 1,800링깃, PSA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포함한 총 $11,580 + a$ 를 보험가입자가 받을 수 있음.

□ 자동차 타카풀의 배당금 처리

- 전통 자동차 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경우가 없음.
-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환급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없었을 경우 차기 년도의 보험금을 할인하는 형태를 통해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것임.
- 타카풀에서는 납입한 보험금 환급을 만기시에 배당금의 형태로 받는 것과 다음 해에 보험금을 할인받는 2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음.

□ 타카풀의 가입 추이

- 무슬림 인구들 중에서 아직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음.
- 이들 중에 소득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보험보다는 타카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.